

# 제주도 전래 ‘초재민속품’에 관한 연구

김 동 섭\*

## 차 례

1. 서론
2. 초재의 종류와 제작환경
3. 초재민속품의 종류와 특징
4. 관련민속
5. 제주도 초재민속품의 고유성 분석
6. 결론

## 1. 서론

문화는 그 지역 사람들이 지역이 갖는 지정학적 특징을 반영하면서 그 지역이 갖는 자연환경과 역사배경 속에서 고유성을 지니며 그 속에서 생활해 오면서 만들어 낸 생활양식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지역성을 나타내며 시대적 변천상을 보여주면서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종종 15년(1520)에 제주로 유배(流配)온 김정(金淨)이 “이 고을 풍토는 특이한 구역이라 하나하나 달라서 자칫하면 탄식하고 놀라울 일이라 하더라도 불만한 것이 없도다.”고 기록<sup>1)</sup>한 것에서도 이를 실감나게 한다. 적어도 제주 민

\*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고고민속과장

1) 金淨(洪貞杓역), 『濟州風土錄』, 『耽羅文獻集』,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8쪽.

속문화는 그 때에도 고유성을 지녔음을 살필 수 있게 하고, 또한 제주 문화의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설명과 해설이 필요함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다. 서민들이 생활의 필요에 따라 직접 만든 살림살이, 즉 생활용구를 살핌으로서 인류문화의 발전단계를 살피고 민족의 이동이나 문화의 전파 경로를 따지는 데 구체적인 증거들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초기 인류학자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던 분야가 민속물질 분야였음<sup>2)</sup>은 이미 살핀바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 지역적인 문화의 양태를 밝히고 나아가 민족문화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삶 속에서 필요에 의해 기술을 보태어 만들어 낸 일상의 도구들을 민속품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제주도의 민속품이란 제주도를 삶의 터로 살고 있는 제주도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영위하면서 도움을 받고자 만들었거나, 외래에서 들여온 것으로 그들에 의해 전승되어 오면서 그들에 의해 그 기능을 향상시켜 온 것들을 가리킨다.<sup>3)</sup> 그러므로 민속품들의 그 지역의 고유함을 담고 있기 마련이다.

어느 지역의 민속이나 민속품은 그 지역에서 가장 쉽고 구할 수 있는 것을 재료로 하여 만들어지기 마련이다. 제주의 전래 민속품 또한 제주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원료로 하여 만들어졌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다양한 민속품 중 본고에서는 제주의 산야(山野)에 지천으로 널려 있었던 초재들을 재료로 생활의 필요에 활용하기 위하여 만들어 사용하였던 초재 민속품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초재중 민속품의 원료가 되어 재료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들은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를 살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향후 또 다른 재료로의 이용을 모색할 때 하나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 사용되었던 민속품들을 생활의 범주로 나누어 살핌으로서 초재 이용에 따른 선인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다른 지역에서 이용하였던 민속품들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2) 김광연, 「민속물질의 연구방법」, 『韓國民俗學의 課題와 方法』, 정음사, 1986. 288~297쪽.

3) 김동섭, 「제주도 전래 농기구」, 민속원, 2004. 4쪽.

기대한다.

지금까지 초재민속품을 다룬 선행연구로는 진성기, 고광민, 김동섭, 김미영, 인병선의 것을 살필 수 있다. 진성기(秦聖麒)는 세시풍속을 설명하는 글<sup>4)</sup>에서 '해심', '불찍아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고광민(高光敏)은 바구니를 설명하는 글<sup>5)</sup>에서 '구덕'에 대해 설명하였다. 김동섭(金東燮)은 농기구를 다루는 글<sup>6)</sup>에서 '굴채', '씨부게'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본격적인 연구는 문화재연구소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곳에서는 초재와 민속품을 함께 다루면서<sup>7)</sup> 살피고 있다. 인병선은 전국의 짚풀을 재료로 하는 공예를 살피면서 그 성과물인 짚풀민속품도 함께 다루고<sup>8)</sup> 있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는 초재민속품에 대한 특별전을 개최하면서 초재 민속품의 재료와 민속품 등을 검토한 바 있다. 이들 선행연구에서는 다른 민속을 설명하는 글에서 부분적으로 살폈을 뿐 본격적인 초재민속품에 대한 연구에는 이르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본고에서는 초재민속품의 명칭, 재료의 종류와 기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선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의 소장자료를 살피고 그들 자료를 중심으로 현지를 방문하여 오랜 시간 초재민속품을 사용해 오신 현지민들을 대상으로 제작환경과 이용상황을 살피고자 한다. 이는 논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제주에서는 다양한 초류(草類)를 필요에 충당하였다. 우선 지붕일기의 재료로 새와 각단이라는 초류를 이용하였다. 이들은 벧짚과 같이 부드럽지 못해 손으로 줄을 만들 수 없어 '호랭이'와 '뒤치기', '줄어울이'을 이용하여, 집줄을 만들어 사용하였던 분들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제주도내에서 제작되었거나 제주도내에서 사용된 전래 민속품으로 제한하여 살핀다. 이는 차후에 다른 지역의 초재민속품과 비교 검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초재민속품을 통한 제주민속문화의 고유성을 살피는데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길 기대하고 있기

4) 秦聖麒, 『濟州島民俗』, 濟州民俗研究所, 1997, 206~207쪽.

5) 고광민, 『濟州의 食生活用具』, 제주대학교박물관, 1989, 49쪽.

6) 金東燮, 『濟州島 鐵材民俗品 研究』, 『調査研究報告書』(12),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1998, 28~30쪽.

7) 이은복 외, 『짚풀공예』, 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8) 인병선, 『짚풀문화』, 대원사, 1995

때문이다. 현지조사와 그 기록의 중요성을 지적하지 않더라도<sup>9)</sup>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를 통해 제보자를 통해 보고, 듣고, 기록하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택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주도의 고유성을 밝히기 위해서 다른 지역의 것과 비교함으로써 이해에 이르고자 한다.

화산섬 제주는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하고 바다 한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그러기에 다른 지역과는 구분되는 온난다습(溫暖多濕)한 해양성 기후를 가지고 있는 점이 또한 구분된다. 민속 사회에서 주 생업이 농경이었음은 제주도(濟州道)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곳 제주에서의 농경은 곧 '잡초와의 전쟁'을 의미할 정도로 온난다습한 기후 속에서 자란 많은 잡초들과 힘든 전쟁을 치러야 할 만큼 농경은 힘든 작업을 수반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반면 이러한 여건은 다양한 초재를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해 주었음은 물론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제주만의 특징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2. 초재의 종류와 제작환경

나무와 풀의 구분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일년생의 것으로 나이테를 갖지 않은 식물을 나이테를 갖는 '목재'와 구분하여 '풀'이라고 하는 것을 준용하여, 본고에서는 제주인들이 주변에서 쉽게 구하여 사용하였던 풀과, 보리대 등의 곡물의 부산물을 재료로 만들어 사용하였던 것을 '초재민속품'이라 명명하고 이를 살피고자 한다.

### 1) 제주도 초재(草類)의 종류

인축(人畜)의 약용(藥用)으로 풀을 풍부히 이용하고 있는 제주인들을

9) Warren E. Roberts, 『Fieldwork: Recording Material Culture』, 『Folklore & Folklife』, The University of Chicago. 1972. 431쪽

보고 석주명은 그 이름을 정리한 바<sup>10)</sup> 있다. 그리고 식용으로 나무 열매를 이용하기도 하였는데, 삼동, 탈, 시러미, 멀리, 틀, 볼래, 유름, 오미즈, 굿간달귀(뿔낭열매), 모람, 개불 따위를 들 수 있다.

### (1) 새

산과 들에서 자란다. 높이 1~2m로, 뿌리줄기는 모여나고 굵으며 원기둥 모양이다. 잎은 줄 모양이며 길이 40~70cm, 나비 1~2cm이다. 끝이 갈수록 뾰족해지고 가장자리는 까칠까칠하다. 맥은 여러 개인데, 가운데맥은 회고 굵다. 밑동은 긴 잎집으로 되어 있으며 털이 없거나 긴 털이 난다. 뒷면은 연한 녹색 또는 흰빛을 띠고 잎혀는 흰색 막질(膜質:얇은 종이처럼 반투명한 상태)이며 길이 1~2mm이다. 뿌리는 약으로 쓰고 줄기와 잎은 가축사료나 지붕 잇는 데 쓴다. 한국(전지역)·일본·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미삐쟁이란 억새꽃을 말한다. 억새는 제주 방언으로 어욱이라고 하는데, 이 어욱이 첫여름 제꽃봉오리가 생길 무렵 위로 숙 잡아 뽑으면 뽑아 낼 수 있다. 꽃이 아직 부드러울 때 어린애들이 즐겨 먹는다. 이렇게 뽑아 낸 억새의 연한 꽃봉오리를 어욱뽕이라고 한다. 이 어욱뽕이가 먹을 수 없을 만큼 되었으면서도 아직 피지 않았을 때, 이를 뽑아내면 이 어린 꽃과 더불어 잎이 두서너 개 붙게 되는데, 잎을 떨어버리면 잎자루는 밧줄을 풀수 있는 재료가 되고, 속에서는 밧뽕장이 나온다. 억새의 잎자루로 가는 밧줄을 만들면 초신의 놀이나 쇠약배를 꼬아 만드는 데 사용되며 또한 이 밧뽕쟁이는 불씨를 이어주는 화심을 만들어 산에 들고 다니면서 담배도 피우고 때로는 산에서 체를 지낼 때 향로 대용으로도 이용한다. 그러기에 늦은 봄부터 새에서 나오는 미삐쟁이를 뽑아다가 말려두는일이 있으며, 옛날에는 이로서 숨 대신 넣어 이불과 요, 그리고 방석 따위를 만들어 두었다가 특히 손칭(손님을 접대하는 방)에 깔아 손님을 맞이하는풍속이 있어서, 예전에는 이 미삐쟁이를 귀하게 마련해 왔다고 한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미삐쟁이가 석 전의연한 때는 아이들이 즐겨 빼다

10) 石宙明, 『濟州島資料集』, 寶晉齋, 1971. 30~54쪽

가 벗겨 먹고, 이에 따른 뱅이치기라는 놀음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미뻬쟁이는 이질에 걸려 대변을 못보는 이가 떡을 만들어 먹으면 당장에 이질이 터지는 좋은 약이라고 말한다.

## (2) 짚

보통 벼의 경우에는 볏짚, 보리는 보릿짚, 밀은 밀짚이라고 한다. 볏짚은 한우(韓牛)의 겨울철 사료로 많이 쓰이고, 그 밖에 가축의 외양간 것으로 이용되어 결국은 퇴비의 형태로 농경지에 환원된다. 예전에는 가마니·새끼·거적 등의 각종 고품품(藁工品)의 원료로 이용되어 농가의 소득을 올려주었으나 현재는 이부분에는 이용되지 않는다. 최근에는 생짚을 그대로 눈에 집어넣어 논토양의 유기물을 증진시키는 데 많이 이용된다. 전에는 농촌의 초가지붕을 덮고 이는 이영을 만드는 데, 그리고 농가의 주요한 연료로 많이 이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지붕개량과 연탄·석유·가스 등의 사용 증가로 이 부분에 이용되는 양은 크게 줄었다. 보릿짚과 밀짚도 자라나 모자를 만드는 데 쓰였고 퇴비 또는 농가연료 등으로 이용되었으나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는다. 호밀짚은 길고 뻗뻗하여 인삼밭의 해가림으로 쓰이며, 기타 비·바람막이를 만드는 데 많이 이용되고 있다. 돌피의 짚은 특히 겨울철의 말먹이로 많이 쓰이며 쇠먹이로도 이용되고 있다.

## (3) 모시풀

모시풀을 저마(苧麻)라고도 한다. 동남아시아 원산이며 줄기의 인피섬유(靸皮纖維)를 목적으로 오래 전부터 재배되었다. 한 번 심으면 땅속줄기가 자라나서 해마다 새로 그루가 나와 10년 이상 수확할 수 있다. 따뜻한 곳에서는 연 3회, 열대에서는 6회를 수확할 수 있다. 모시풀은 보통 백엽종과 녹엽종으로 나눈다. 백엽종은 잎 뒷면에 흰 털이 밀생하고 온대지방에 적응하므로 예로부터 한국·중국·일본에서 재배되었으며, 섬유가 세미하고 품질이 좋다. 녹엽종은 잎 뒷면에 털이 없으며 열대 기후에 적합하나 품질이 백엽종보다 떨어진다. 또 모시풀은 지역적으로 분화되어 한국종·일본종·중국종·타이완종 등의 구별이 있다. 한국종은 조숙이고

추위에 강하며 품질이 우수하지만 초장이 짧고 수확량이 적다. 일본종은 수확량과 품질이 보통이다. 중국종은 만숙이며 수확량이 많으나 품질이 떨어진다. 한국에서는 백피종·서방·재래종 등이 재배되고 있다. 그 중 백피종은 타이완에서 재배하던 것을 일본에서 도입하여 계통 선발로 육성한 품종이다. 한국에서는 충청남도·전라남도·경상남도에서 재배되는데, 충청남도 서천의 한산은 모시산지로 유명하다. 모시풀의 인피섬유는 다른 식물에 비해 아주 길고 강인하며 광택이 있고 내구성이 풍부하다. 특히 물에 강하고 가벼우며 비중이 아마 섬유의 60% 정도이다. 그 때문에 어망·선박용 강삭(綱索)·호스·범포(帆布) 등에 사용되는 외에 옛날부터 각지의 특산 직물이 되었다. 하복지·와이셔츠·레이스·손수건용 직물 등으로 쓰이며, 아마사·면사 등과의 혼방(混紡)도 나오고 있다.

#### (4) 어저귀

인도산이고, 섬유식물로 한때 많이 재배하였으며 들로 퍼져 나간 것도 있다. 귀화식물이며 높이 1.5m 정도이며 전체가 털로 덮인다. 잎은 어긋나고 잎자루가 길며 심원형으로서 가장자리에 둔한 톱니가 있다. 꽃은 8~9월에 피고 황색이며 잎겨드랑이에 모여 달린다. 꽃받침조각과 꽃잎은 5개씩이고 밑부분이 합쳐지며 수술은 합쳐져서 통처럼 되고 암술은 10여 개의 방으로 갈라진 씨방이 있다. 열매는 삭과이며 9월에 결실하며 심피가 둘러싼 모양으로 배열하고 흑색으로 익으며 뽀족한 끝이 밖으로 젖혀진다. 종자의 겉에 털이 있다. 줄기에서 윤기가 나는 섬유를 채취하여 로프와 마대를 만들고 찌꺼기는 종이 원료로 한다.

#### (5) 으름

으름덩굴이라고도 한다. 산과 들에서 자란다. 길이 약 5m이다. 가지는 털이 없고 갈색이다. 잎은 묵은 가지에서는 무리지어 나고 새가지에서는 어긋나며 손바닥 모양의 겹잎이다. 작은 잎은 5개씩이고 넓은 달걀 모양이거나 타원형이며 가장자리가 밋밋하고 끝이 약간 오목하다. 관상용으로 심으며 과육(果肉)은 먹을 수 있고, 덩굴은 바구니를 만든다. 한방에서는

뿌리와 줄기가 소염·이뇨·통경 작용에 효능이 있으므로 약재로 쓴다. 한국(황해도 이남)·일본·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 (6) 정동

정동은 땡땡이덩굴을 가리킨다. 1년살이 식물로 잎이 겨울에 죽으면 그 다음해 봄에 뿌리에서 다시 자라 나온다. 여름철 한창 자랄 때는 하루에 1m가 넘게 자란다고도 한다. 9월말에서 10초가 땡땡이덩굴을 걷을 적기다. 1년치를 장만하여 사용한다. 땡강넝쿨이라고도 한다. 들판이나 숲가에서 자란다. 줄기는 3m 정도이다.

### (7) 칩

산기슭의 양지에서 자란다. 줄기는 길게 뻗어가면서 다른 물체를 감아 올라가고 갈색 또는 흰색의 털이 있다. 잎은 어긋나고 잎자루가 길며 세장의 작은잎이 나온 잎이다. 한방(韓方)에서는 뿌리를 갈근(葛根)이라는 약재로 쓰는데, 발한·해열 등의 효과가 있다. 뿌리의 녹말은 갈분(葛粉)이라 하며 식용하고, 줄기의 껍질은 갈포(葛布)의 원료로 쓰며, 뿌리를 삶은 물은 음료로 이용한다. 이밖에 신서란, 자골 등이 재료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 제작환경

### (1) 지붕일기 도구

집을 이는 일이란 띠로 지붕을 새로 있는 것이다. 제주도의 초가지붕은 한라산 기슭 초원지대에서 나는 띠로 2년마다 한 번씩 새롭게 있는 것인데 그 시기는 보통 10월에서 12월초까지를 잡고 있다. 그런데 지붕을 있는 데는 날짜를 봐서 이으며, 특히 천화일을 피해 있는 풍속이 있다. 천화일(天火日)이란 자(子), 오(午), 묘(卯), 유(酉) 등 4일을 말함이요, 이 날은 멸망일로 치고 지붕을 손보지 아니하는 풍속이 있다. 만일 천화일에 지붕을 띠로 있거나, 거뒀 치우거나 고치거나 하는 일이 있으면 그 집에는 반



드시 화재가 나든지 아니면 큰 일이 터져서 멸망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소날에 시집 장가를 안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말한다.

- ① 호랭이 : 재료인 각단을 한사람이 넣어주면 이것을 이용해 돌리면서 '외줄'을 만들어 간다.
- ② 지게 : 호랭이로 만든 '외줄'을 임시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선 헝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선 양쪽에 의지할 것을 두어야하는데 이때 이용한 것이 '지게'였다. 다른 한 쪽 그레홈에 작대기를 꽂아 사용하기도 한다.
- ③ 뒤치기 : '외줄' 두 개를 어우러 '집줄'을 만들고자할 때 사용한 민속품이다. 적당한 크기를 놓아진 '외줄' 두 개를 연결하고 그 중앙에 뒤치기를 걸어 돌린다. 그럼 '외줄' 양쪽 끝에 '호랭이'를 걸어 돌리면 '집줄'이 된다. 이때 '호랭이' 돌리는 것과 '뒤치기' 작업이 일정해야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호흡이 중요하다.
- ④ 줄어울이 : '집줄'을 만들기 위해선 '외줄' 두 개를 어우러야 했는데, 이때 '외줄'의 꼬아진 형태로 계속 돌려야만 풀어지지 않았다. 이때 두 개의 '외줄'이 엉키지 않도록 두줄을 적당하게 어우러주는 민속품이다.

## (2) 짚신 만드는 도구

짚을 두드려 부두럽게 한 다음은 '눌'11), '썬각'12)을 만들고 다음의 도구를 이용하여 만들었다.

- ① 짚신골 : 짚신을 만들 때 본으로 대어 사용하는 민속품(民俗品)을 가리킨다.
- ② 짚신방망이 : 짚신골의 하나인 보족(補足)을 칠 때 사용하는 나무

11) 짚신을 만들 때에 짚신의 바닥에다 신의 근간을 이루도록 길게 놓은 굵은 줄을 가리킨다.

12) 신총 짚신 따위의 앞쪽에 박힌 날날의 '신울'을 가리킨다. 石宙明, 『濟州島資料集』, 寶晉齋, 1971. 30~54

방망이를 가리킨다.

③ 짚신틀 : 짚신을 엮을 때 엮을 때 줄을 대도록 깔고 앉아 작업할 수 있도록 한 민속품(民俗品)을 가리킨다.

④ 신차세 : 짚신을 삼을 때에 신날을 걸어서 발로 번디디어 당기기도 하고 신뒤축 같은 데를 꾸부러지게 누르기도 하는 민속품(民俗品)을 가리킨다.

### (3) 출 배는 도구

제주에는 출을 베는 도구로 2종류의 낫을 이용하였다. 보통 쓰는 낫과 '장낫'이라고 불리는 긴 낫의 두 가지가 그것인데, 대개 성산, 표선 등의 동반부에서 주로 '장낫'을 이용했음<sup>13)</sup>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지역이 다른 지역과 달리 목축(牧畜)이 성행했던 지역이었음을 가리키는 증거이기도 하다. 다른 지역에서는 농사 중심의 생활로서 보통 낫으로 쓰게 된다.

## 4. 제주도 전래 '초재민속품'의 종류와 특징

### 1) 의생활용품

#### (1) 우장(雨裝)

우장은 비를 가리는 비옷의 하나다. 띠를 곱게 손질하고 미(茅)를 가늘게 새끼를 꼬아 지정된 특에 맞게 제작하는데 띠가 하단으로 향하기때문

13) 동반부 주민들은 넓은 목야지를 끼고 살아오는 동안에 이렇게 긴 낫을 쓰는 생활 풍도가 이루어진 것이다. 대개 이곳의 주민들은 한꼴밭에 10여 명씩 띠를 지어서 선 채로 그 긴 낫으로 온종일 일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하루에 보통 한 사람이 12바리(160속)정도는 거뜬히 베어 낼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앉아서 베는 보통 낫보다는 6배 가량의 더 많은 꼴을 베어낼 수가 있으니, 능률적이라 하겠다. 그렇지만 이 긴 낫으로 일을 하면 보통 낫으로 일하는 것에 비해 힘이 몇 배나 더 든다. 그러기에 긴 낫을 쓰는 일꾼들에게는 점심을 두 차례나 대접하고, 따라서 그 노임도 보통의 품삯보다 배가 더 비싸다.

에 빗물이 속으로 스며 들지 않았다. 비바람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더욱 이 이용도가 많았는데 신발은 나막신이며 모자는 털벌립. 정당벌립으로 가리므로서 우마를 돌보는데 흔히 이용하였다. '잡세기<sup>14)</sup>, 도롱이, 우의, 츄렁이'라고도 한다. '나막신<sup>15)</sup>과 '정당벌립'을 함께 쓰고 우마(牛馬)를 돌보는 옛 사진이 전해 오고 있는데, 주로 비바람이 심한 날 바깥에서 작업할 때 주로 입었다. 띠(矛)로 가늘게 새끼를 꼬아 그물 모양의 틀을 만들고, 많이 비를 맞더라도 비가 스며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바깥에 띠를 엮어 나가는데 띠의 끝이 하단(下端)을 향하도록 하였다. 통풍이 잘되는 털마루의 기둥이나 헛간 등에 걸어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사용하였다. 오늘날은 비닐 등을 쉽게 구할 수 있어 대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들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이 완전히 사라진 민속품 중의 하나가 되고 말았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 여러 점이 소장되어(자료번호 715 등) 전해져 오고 있다. 이 자료는 성산읍 난산리 김○○으로부터 1977년 제주도청 문화예술과에서 구입(1977년 당시 10,000원)하여 보관해 오든 것을 1984년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이 개관되면서 이전되어 도민의 자산으로 보존,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 상시 관람할 수 있는 상설전시실에서는 한 점(자료번호 4805)이 초가에 전시되어 여러 점을 비교하여 볼 수 없는 아쉬움이 남으나 도록(圖錄) 및 특별전(特別展)을 통해서 일반에게 공개될 것이라고 하니 그 때를 기대한다.

## (2) 정당벌립

'정동벌립, 정동모자, 정동병것, 정동병긋'이라고도 한다. 돌발이 많은 곳에서 자라는 '댕댕이덩굴'로 만든 것으로, 머리가 들어가고 이마가 닿는 부분인 '모жат골'을 사용자의 머리에 맞게 하고 차양(遮陽)을 넓게 하여 해가림이 많이 되도록 하였다. 무성한 풀들 사이에서 우마(牛馬)를 돌보는

14) 泉靖一, 『濟州島』(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 1966), p.216.

15) 비가 많이 와서 물이 고인 곳을 나다닐 때 신었던 신이다. 뱃나무, 고련목 등 가벼운 나무로 사용하는 사람의 발 크기에 맞추도록 만들었는데, '코'는 올라가게 만들고 뒷꿈치는 돋우었으며 바닥의 '굽'은 평행이 되도록 하였다. 남녀용의 구별은 없었으나 여자의 것을 조금 더 섬세하게 만들었다.

목자(牧者)들이 주로 사용하였는데, 소낙비를 맞아도 안 썰 정도로 좀질 게<sup>16)</sup> 짠것이 특징이나 좁은 무거운 것이 흠이었다. 오늘날은 관광 상품으로도 만들어 팔고 있다.<sup>17)</sup>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 소의 뿔을 주재료로 만든 것이 소장되어(자료번호 694) 전해져 오고 있다.

### (3) 짚신

‘짚신’, ‘초신’, ‘찍신’, ‘짚세기’라고도 불렀다. 짚을 재료로 가는 새끼를 꼬아 날을 삼고, 총과 돌기총으로 울을 삼아서 만드는데 여자용은 총을 가늘고 곱게 하고, 엄지총은 물들인 짚을 섞어 만들기도 하였다. 옛날에는 사서(土庶)를 막론하고 짚신이 평상화로 사용되어 농가에서는 농한기에 머슴들이 사랑방에 앉아 몇 십 켤레씩 짚신을 삼아 식구들의 수요에 충당하고, 시장에 내다 팔아 용돈으로 썼다. 지금도 초상집 상제들은 짚신을 신는 풍습이 있다. 짚신과 같은 형태의 신발로서 삼(麻)으로 만든 것을 ‘미투리’라 한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는 여러 점의 짚신이 소장되어(자료번호 404 등) 전해져 오고 있다.

### (4) 부채

대나무로 만들어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함죽선과는 달리 사각형으로 만들어진 일체형 부채이다. 50죽(竹)이라 하여 부채살이 50이나 되는 것을 가리켰는데, 살이 많을수록 고급으로 쳤다. 그러나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는 ‘징줄’을 주재료로 만든 것이 소장되어(자료번호 6862) 전해져 오고 있다.

## 2) 식생활용구

초재 민속품 중 식생활에 이용한 도구로는 보관구로서 가마니를 들 수

16) ‘잘고 가늘게 짜였다’는 제주 지역어(地域語)다.

17) 관광 상품인 ‘정당벌립’은 재료를 ‘땡땡이 덩굴’로 사용한 것은 같으나 형태는 전통적인 것과 아주 다르다.

있다. 그리고 제조구로서 바가지가 이용되었으며, 싸리 등으로 만든 도구도 이용되었다. 그밖에도 표주박, 채반 등이 이용되었는데 이들에 대해 살핀다.

### (1) 바가지

'물박', '물바가지', '물박세기'라고도 불렀다. 물항에 담아 물을 퍼내는데 썼던 박세기를 말한다. '꼭박'으로 주로 만들었다. 물항아리에서 물을 떠내거나 다른 용기로 옮길때 사용되었다. 잘 영글어진 박을 중간으로 쪼개 속살을 깨끗이 제거하고 그늘에서 적당기간 건조시키면 단단한 바가지가 된다. 이 바가지는 물항 뚜껑 위에 주로 보관하는데 사용하다가 금이 나거나 상처가 나면 '오줌바가지'나 '씨앗보관용'으로도 사용된다.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에는 꼭박을 주재료로 만든 것이 소장되어(자료번호 5432 등) 전해져 오고 있다.

### (2) 채반

뗏가지를 광주리처럼 결되 전을 발딱젓혀서 편편하게 한 그릇이다. 국수를 사리를 지어 건져놓는다든지 부침개를 통퐁이 되게 늘어놓는다든지 하여 폭넓게 쓰인다.<sup>18)</sup>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 얇은 나무 껍질을 주재료로 만든 것이 소장되어(자료번호 5604) 전해져 오고 있다.

### (3) 표주박

전래 혼례 때 교배례(交拜禮)의 과정의 예식에서 사용하였던 잔의 하나로, 근배가 사용되었다. 주로 표주박 작을 말한다. 사냥을 다니거나 목자(牧者)들이 휴대하여 다니는 물바가지의 일종이다. 밭 여론 조롱박을 반으로 쪼개어 내용물을 제거하고 그늘에서 여러 날 건조시키면 단단하게 말려진다. 잘 말려진 박은 한 쪽 모퉁이에 끈을 매달 수 있게 구멍을 뚫고 휴대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표주박은 박 이외에도 야자열매 등 열매의 껍

18)이훈중, 『민족생활어사전』, 한길사, 1992, p.294

질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조각을 하거나 색상을 입혀 이용하기도 한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는 여러 점이 소장되어(자료번호 435 등) 전해져 오고 있다.

#### (4) 약돌기

물건을 담아 메거나 걸 수 있게 그물처럼 뜬 그릇이다. 한자말 망탁에서 온 말이다. 짚보다 질긴 왕골이나 양생의 풀인 거랑으로 가늘게 새끼를 꼬아서 그것으로 결는다. 노끈으로 결은 것은 특히 '노망태기'라 하여 장기를 넣어두기도 하고, 점심을 우멍주발에 담아 넣고 다니기도 하였다. 그물 테로 된 망태기 비슷한 것으로서, 산에서 썩을 받으면, 점심을 넣고 어깨에 메고 간 이 약돌기 속에 담아 가지고 온다. 보통 이러한 약돌기에는 다섯 마리 정도의 썩을 담을 수 있으며, 이 속에 썩을 담고 어깨에 메고 다닐은 편리할 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좋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는 여러 점이 소장되어(자료번호 1387 등) 전해져 오고 있다.

#### (5) 춤

옛날에 물이 귀한 중산간 부락민들 사이에는 비가 올 때 지붕이나 나뭇가지로 흘러내리는 물을 받아먹은 일이 많았다. 보통 이런 경우 지붕 위에 내린 빗물이 집가지(처마)를 통하여 떨어지는 물을 지신물이라 하며, 나뭇가지로 받은 물을 춤받은 물이라 한다. 그런데 지붕 위에서 내리는 물은 요즘에도 받아 두었다가 걸레도 빨고 나무에도 주고 해서 비록 음료수로는 쓰지 않으나 곧잘 받아낸다. 그러나 나무 위에서 받은 물은 좀 힘을 들여야 했다. 특히 나무 가운데도 죽낭(때죽나무) 가지에 띠로 엮어 밑으로 물이 흘러내리도록 줄을 만들고 항아리를 받쳐 둔다. 이렇게 해서 받은 물은 춤받은 물이라 해서 천제에 썼다 하니, 이 나무는 나무 가운데서도 깨끗한 나무로서 곧고 빛이 고와 흔히 회초리 감으로도 이용되는 나무이다. 사실 이러한 '춤받은'은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한림읍 비양도에도 있었던 일이고, 20여 년전까지는 표선면 성읍리에도 흔히

볼 수 있었던 음료수 얻는 방법의 하나였다.

### 3) 주생활용구

#### (1) 문초리

문초리는 열어놓은 문을 눌러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끌럭지와 달리 바람에 열어놓은 방문이 열렸다 닫히면서 흠뻑에 충격을 덜 주기 위해 벽에 달아두었던 것이다. 짚이나 새로 만들었다.

#### (2) 고리 짝

고리 짝을 조그맣고 예쁘게 만든 것이 동고리, 조금 큰 것이 설기다. 흔히 친정에 다니러 갔다오고 할 때 엿이나 떡을 넣어 나르는 것이 이것이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는 두 점이 소장되어(자료번호 7118 등) 전해져 오고 있다.

#### (3) 짚방석

'짚방석'이라고도 불렀다. 짚이나 새끼를 여러 겹으로 동그랗게 틀고 새끼로 뱅 돌려 감아 만든 방석이다. 집 밖에서 한 사람씩 깔고 앉기에 편리하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는 20여 점이 소장되어(자료번호 1390 등) 전해져 오고 있다.

#### (4) 지직

뜸을 말하는 제주 지역어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는 10여점이 소장되어(자료번호 2837 등) 전해져 오고 있다.

#### (5) 발

발은 '발차'라고도 불렀다. 헛간 등 결채의 출입구를 가려서 비가 들이치는 것을 막기 위해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동식 가리개로 '발

풍채'가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면 비바람이나 시선(視線)을 막기 위해 설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는 3점의 자료가 소장되어(자료번호 5879 등) 전해져 오고 있다.

#### 4) 생업용구

##### (1) 농기구

① 푸는체 : 주로 여자들이 사용하던 것으로 탈곡 작업 때 '줄레<sup>19)</sup>'를 구분하거나 '줄레'와 함께 있는 알곡을 정선할 때, 또 'ㄱ레'로 가라 낸 껍데기와 쌀을 구분할 때 '체질<sup>20)</sup>'하는 데 사용하였다. '굽'은 넓고 편평하며 '뒤'는 좁고 오목하게 하여 손잡이인 '에움'에 붙어 있고, 앞쪽으로 '바위'가 덧대어 있게 만들어졌다. 바람이 없는 날에 주로 사용한다. '체굽'의 재료에 따라 구분되는데 대나무로 된 것과 정동 덩굴, 줄갱이 줄로 된 것으로 구분된다. 남원, 서귀 등 도내 남쪽 지역에서는 대나무를 엮어 짚것을 사용하였으나, 북쪽 지역에서는 줄갱이 줄로 짚것을 주로 썼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는 자골을 재료로 만든 것이 소장되어(자료번호 5585) 전해져 오고 있다. 잠자리에서 오줌을 잘 싸기 버릇하는 아이를 제주도에서는 오줌싸기라고 한다. 이른바 오줌싸개인 것이다. 어린 아이가 자리에서 오줌을 싸을 경우에는 이웃집에 가서 소금을 얻어 오라고 해서 보내는 습속이 있다. 하다.

② 맥 : '맥', '떡서리', '멕서리', '멕다리', '맥'이라고도 하는데, '떡서리'를 가리킨다. 곡식을 보관하는 것과 운반하는 민속품(民俗品)로 함께 쓰여지고 있다. 돼지거름이나 소 거름 또는 재(회)를 밭이나 농장에 운반할 때 쓰이는데 소의 등짐으로 운반될 때는 거름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잘 밟은 다음에 운반한다. '멕바늘'이라고 하여 '멕'을 짜는데 쓰는 바늘

19) 죽쟁이·띠끌·검부라기 등을 일컫는 제주 지역어(地域語)다.

20) 탈곡한 곡물을 담아 가벼운 것은 날아가거나 앞에 남게 하고, 무거운 것은 뒤로 모이도록 구분하는 작업을 '체질'이라고 한다. 또 바람이 조금 있는 날이면 '체'를 높이 들고 천천히 쏟아 내려서 정선하기도 했다.



이<sup>21)</sup> 전해오고 있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는 40여점 이상의 많은 자료가 소장(자료번호 1215 등)되어 전해오고 있다.

③ 명석 : '덕석'이라고도 하는데, 탈곡한 곡물 등을 건조시킬 때나 수확한 작물을 탈곡할 때 등 땅 바닥에 깔개용으로 썼다. 산딕짚으로 엮어 만들었으며 직사각형과 원형(圓形)의 것이 함께 쓰였다. '날레 년다'고 하여, 명석을 마당에 깔아서 곡식을 펴 널어 말리는 데 하루 2~3회 '당그네'로 저어 끌고루 말린다.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용이하게 엮어 낼 수 없었으며, 크기는 길이 315cm, 폭 173cm 정도로 1개가 반 평(坪)정도다. 오늘날은 '큰일'이 있을 때 마당에 깔개로 사용하거나, 모인 사람들이 옷놀이 판을 벌릴 때 등에 사용하고 있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는 20여점의 자료(자료번호 1454 등)가 소장되어 전해져 오고 있다.

④ 뿔망태이 : 짚으로 엮어 원통형으로 만든 운반구이다. '뿔 망태이'라고도 한다. 이삭이나 곡물을 넣고 손으로 들거나, 질매를 이용하거나 마차에 싣거나 사마의 등허리에 지고 운반한다. 수명은 3년에서 오래 쓰면 8년 정도이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는 여러 점의 자료가 소장되어(자료번호 2250 등) 전해져 오고 있다.

⑤ 씨부게 : '씨부개기', '씨부게기', '씨부개'라고도 한다. 짚이나 미(억세속잎) 또는 신서란을 이용하여 만드는데 윗부분은 좁고 밑부분은 평평하게 하여 복주머니 모양과 흡사하다. 씨앗을 뿌리거나 씨앗을 장기간 저장할 때 사용하는데 좌우에 끈을 달아 씨를 뿌릴 때는 어깨에 댈 수 있도록 하였고 장기간 보관할 때는 끈을 매달아 사용하였다. '씨앗항아리', '씨허벅'이라고 하여 '허벅'과 흡사하게 웅기로 만들어진 것도 이용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이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고 부리가 넓다. 주로 보리, 조, 매밀, 콩 따위의 씨를 보관하는데 쓰였으며, 수명은 반영구적이었다. '부게기'라 하여 '씨부게'와 비슷하나 목이 좁아 조여 댈 수 있게 된

21) 짚으로 노를 만들어 씨줄을 넣고 날줄을 엮어갈때 가끔씩 쓰거나 엮어나온 부분을 여밀 때 사용한다. 소장자료는 유물번호 3345으로 길이 14.5cm이다. 맥바농 먹둥구미가 헐떨어질 적에 귀에 사는 새끼 따위를 빼어서 엮어매는 쇠로 만든 물건을 가리킨다.

것도 이용되었다. 이는 주로 귀하거나 소량의 씨앗을 장기간 보관할 때 사용한다. 재료는 짚이나 미를 사용한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는 10여점 이상의 자료가 소장(소장번호 2547 등)되어 전해져 오고 있다.

⑥ ㄹ렛방석 : ‘ㄹ래방석’, ‘고렛방석’, ‘고랫방석’, ‘ㄹ렛덕석(仁城, 西烘, 水山, 加時)’, ‘ㄹ렛방석’, ‘멧방석’, ‘ㄹ렛독석(仁城)’, ‘쳇덕석(表善, 水山)’ 등 다양하게 불렀다. 멧석 외에 이 ‘ㄹ래방석’은 ㄹ래 전용(全用)인데 주로 원형(圓形)이다. 직경 1.8m정도이다. 이 멧석이나 고래방석은 농가에 없어서는 안될 매우 필요한 것이었으나 생활양식이 달라지면서 천막포로 대용되고 차차 자취를 감추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는 여러 크기의 자료가 소장(소장번호 2747 등)되어 전해져 오고 있다.

⑦ 칩구덕 : 대나무를 재료로 하여 만든 구덕과는 달리, 칩줄을 재료로 만든 것을 특히 ‘칩구덕’이라 불렀다. 이런 구덕은 부인들이 굵은 새끼로 어깨에 보통 지고 다닌다. 구덕에 종이를 바른 것을 ‘바른 구덕’이라고 하는데 이 ‘바른 구덕’이 ‘바구니’와 기원이 같은 것으로 검토 한 바<sup>22)</sup>도 있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는 한 점의 자료가 소장되어(자료번호 7078) 전해져 오고 있는데, 이는 칩으로 만든 구덕이 그렇게 보편적이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⑧ 굴체 : 거름이나 자갈 등을 간단히 옮기거나 ‘우영’에서 임시로 먹을 채소를 할 때도 썼다. 보리수확을 할 때 떨어진 보리 이삭을 줍는 데도 썼다.<sup>23)</sup> 가늘고 질긴 나무를 U자형으로 휘어서 전체적인 형태를 잡고 칩, 정동, 대나무로 오목하게 엮어 바닥을 만든 것이다. 바닥인 ‘굽’의 재료에 따라 ‘칩 굴체’, ‘정동굴체’, ‘대굴체’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늘날도 오일장(五日市場)에서 구입할 수 있다. 수명은 1~2년 정도였으며, 쉽게 내려 쓸 수 있도록 헛간이나 ‘굴뚝<sup>24)</sup>’ 입구의 ‘공쟁이’에 걸어 두고 썼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는 줄, 멧줄을 재

22) 石由明, 『濟州島隨筆』(濟州島の自然과 人文), 寶晉齋, 1968, p.104

23) 강영봉, 『제주의 언어』1(제주문화, 1997), pp.160~165

24) 난방(煖房)을 위해 ‘구들’에 불을 지피던 가옥 공간을 말한다. 이 곳 주위에 ‘새똥’이나 ‘말똥’을 깔려 준비한 땔감이나, 장작 등을 보관하기도 하였다.

료로 만든 것이 소장되어(자료번호 5589, 5605) 전해져 오고 있다.

⑨ 가린석 : '숨비줄', '붓줄', '쇄줄', '쇄한줄'이라고도 불렀다. '쟁기'의 한 부품이다. 밭갈이 할 때 왼편으로 쇠머리에 씌워진 긴 고삐를 가리킨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도 소장되어(자료번호 4027) 전해져 오고 있다.

⑩ 가마니 : 곡물이나 소금 등을 담는데 사용했던 짚으로 만든 보관용기를 가리킨다. 가마니는 벗짚으로 새끼를 꼬아 날을 만들고 짚으로 씨를 넣어 짠다. 날과 날 사이에는 '마늘'로 벗짚을 끼우는 사람과 이것을 바다로 내려져 탄탄히 다지는 사람이 협력하여 짠다. 그러나 넣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서 넣어가면서 짜기도 하였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는 다섯 점의 자료가 소장되어(자료번호 7968 등) 전해져 오고 있다.

⑪ 놀 : '놀왓'이란 가리를 쌓아두는 장소를 뜻한다. 놀왓은 형편에 따라 집의 옆이나 뒤, 또는 마당 구석에 위치한다. 추수한 곡식을 쌓아 두는 곡식놀을 비롯하여 알곡을 털고난 짚들을 쌓아두는 '짚놀(짚)', 한겨울 마.소의 먹이인 '출(풀)놀', 팻감을 쌓아두는 '검질놀, 나무를 쌓아두는 '낭(나무)놀' 등이 있다. 우영에는 집 주위의 빈 공간을 말하며, 이령 우жат, 우영팻이라고도 한다. 이곳에서 채소를 재배하여 부식으로 사용하였고 고구마를 저장하는 감자놀을 만들기도 하고 기타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보관하였다. 이곳에는 '놀굽지신'이라고 하여 날가리 노적장(노적장)인 '놀굽'의 신이 있다고 관념하고 있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는 조짚놀(소장번호 3176)이 소장되어 전해져 오고 있다.

⑫ 베틀술 : 베틀 작업을 하기 베틀 묶을 때 도투마리에 풀칠한 실을 말린다음 감아야 했다. 이 때 사용했던 것으로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는 한 점이 소장되어(자료번호 4147) 전해져 오고 있다.

## (2) 축산구

① 망울 : 쟁기질 하는 소나 말의 입에 채워 풀 등을 뜯지 못하게 하는 민속품(民俗品), 짚으로 만들어 썼으나 전깃줄을 구할 수 있었던 시대에는 이를 이용하기도 했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는 3점이 소장되어(자료

번호 2271 등) 전해져 오고 있다.

② 독새기통 : ‘독새기통’이라고도 불렀다. 짚을 촘촘하게 엮어 원뿔형으로 만들고 한쪽으로 손을 집어넣었다가 계란을 꺼낼 만큼의 구멍을 낸 주머니형태의 것을 말한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는 4점이 소장되어(자료번호 4036 등) 전해져 오고 있다.

③ 닭텅에 : ‘독텅에’, ‘텅에’라고도 불렀다. 알을 낳기 위해 닭이 들어앉아 있는 곳을 가리킨다. 제주에서는 닭을 ‘독’, 닭의 벼슬을 ‘독고달’, 달걀을 ‘독새기’라고 불렀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는 3점이 소장되어(자료번호 1377 등) 전해져 오고 있다.

④ 화심 : ‘화심’, ‘화승’(火繩), ‘미심’, ‘미싱’이라고도 불렀다. 싸리껍질을 벗겨 약물로 처리하여 붙여놓은 불이 계속 타게 꼬아낸 노끈과는 달리 미뻬쟁이<sup>25)</sup>를 칩끈으로 묶어 불을 붙여 불씨를 이어 주게 만든 민속품을 가

---

25) 그냥 ‘미’라고도 불리는데, 참억새의 꽃이 채 나오기 전에 그것을 싸고 있는 껍질을 가리킨다. 중산간 부락민들에게는 늦은 봄 때가 되면 이러한 미뻬쟁이를 뽑아다가 말려서 한 자 정도의 길이로 길게 동여 묶어 화심을 만들어 둔다. 이러한 화심은 주로성냥이 귀한 중산간민의 사이에서 들에 마스치러 나갈 때와 기타 밭일을 볼 때 흔히 이용되고 있다. 보통 처음에 불을 일구는 데는 불썩과 부들, 그리고 부쇠가 필요하게 된다. 흔히 썩은 나무 뿌리를 깨어다가 불썩을 삼고 다음에 강도가 높은 돌이나 사기그릇 깨어진 조각으로 부들을 하고 역시 강도 높은 쇠붙이를 부쇠로 삼아 이 부들과 부쇠를 서로 마주치어 마찰시키면 불이 나게 되는 것인데, 이때 튀어나 나오는 불티가 불썩에 붙게 되면 그 불을 화심에 옮겨 붙이는 것이다. 그리고 불썩엿 불을 끄는 때는 대나무 토막을 잘라서 만든 대불통이라는 통 속에 불붙은 질러 넣으면 저절로 공기의 유통이 막히게 되어 불은 꺼진다. 또 이러한 부들, 부쇠, 불썩 등의 부쇠 기구를 담아 두기 위한 주머니를 부쇠주머니라고 한다. 화심은 미뻬쟁이로 만들어진 관계로 그 타는 속도가 비교적 느리고 불 힘이 좋아 한 두자 정도의 화심이면 하루 정도의 불씨를 잇게 된다는 것이다. 산에서 일을 많이 보는 이 일수록 이러한 화심을 준비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으로 담배불도 붙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불을 일구어 무엇을 구어 먹게도 된다. 그리고 본시 화심은 깨끗한 것이므로 때에 따라서는 산에서 지내는 온갖 재의 때에 향로 대응으로 제단에 놓아 향불을 피우기도 한다. 참으로 이 화심은 들에서의 불씨를 잇은 데는 다시 없이 좋은 것으로서 흔히 무속사회에서 심방의 말미로 듣게 되는 “산쟁이미싱불로 도새기 털을 그시리니 돛피기를 먹은 잔 켜간 돈경내가 났다”는 표현을 보더라도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이 화심(미싱불)이 얼마나 생활에 이용되었나를 짐작하게 한다.

리킨다. 포수가 총에 불을 붙이느라 들고 다니는 것이 이것인 데, 여름철 화롯불이 없을 때 하나 붙여 재떨이에 놓아두면 유용하게 활용된다. 이외에도 쭉뚱<sup>26)</sup>, 다부치<sup>27)</sup> 등이 이용되기도 하였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는 미로 만든 것이 소장되어(자료번호 5446) 전해져 오고 있다.

### (3) 어로구

바닷물과 어로 생활이 직결되므로 쉽게 썩을 수 있었던 초류 제품은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① 망사리 : '망시리', '망아리', '홍사리', '홍아리'라고도 부르는데, 역새 풀의 속잎인 '미'를 두드려 만든 '미망사리'가 제일 좋은 것으로 쳤다. 지금은 나일론 줄로 만든 '망사리'를 사용한다. 해녀들이 바다 작업을 할 때 몸을 의지하는 용구다. 박을 늦가을까지 완전 여물게 한 다음 꼭지 부분으로 조그만 구멍을 뚫어 속의 씨앗을 깨끗이 빼내어 뚫린 부분을 마감하며 물위에 가볍게 뜬으로 수심이 깊은 곳에서 작업하고 나와 의지하는데 안성 마춤이다. 태왁에는 해산물을 담을 수 있는 망사리를 달고 빗창과 작살(소살) 꼽아 놓기도 한다. 태왁이 크기에 따라 해녀를 구분하기도 하는데 크면 상군, 작으면 중군, 하군이라고도 한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는 새로 만든 것이 소장되어(자료번호 6215 등) 전해져 오고 있다.

② 배초석 : 배에 사용하는 초석(草席)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갖은 의미로 바람을 받아 향해 할 수 있도록 만든 돛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하여 '돛초석'이라고도 불린다. 나중에는 초석이라는 이름은 남았지만, 무명이나 광목의 재료에 감물을 들인 초석이 되었다고 한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26) 쭉뚱을 칩으로 칭칭 동여 팔뚝 굵기만하게 묶은 햇불이다. 불을 붙여두면 좋은 냄새를 내며 찬찬히 타고 웬만한 비에는 꺼지지도 않기 때문에, 논밭에서 일하는 이들이 모여 쉬는 자리에 해놓아두면 오랫동안 담뱃불 붙이는 소용으로 쓸 수 있다.

27) 다부, 곧 쭉을 말려서 해로 묶은 것이다. 불을 붙여서 발 둘레에 밤새 매달아 놓으면 불뚱이 계속 툭툭 튀고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멧돼지가 가까이 오지를 않아서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산간부락에서 이용한다.

관에는 광목에 감물을 들인 것으로 애월에서 오랫동안 어로(漁撈) 일을 하던 송○○가 1995년 제작하여 사용하던 것이 소장되어(자료번호 6213 등) 전해져 오고 있다.

#### (4) 보습공예구

보습공예 민속품으로 ‘톨레’가 이용되었다. 이는 불미작업을 할 때 사용하였던 민속품(民俗品)의 하나로, ‘дук’에서 녹인 쇳물을 받아 ‘덩이’에 부을 때 ‘오시장테’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때 오시장태를 옮길 때 손잡이로 하는 것을 말한다. 철사를 틀로 하여 ‘가마니노’를 감아서 만들었다.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에는 3점이 소장되어(자료번호 2770, 5950 등) 전해져 오고 있다.

### 5) 신앙의례용구

#### (1) 퇴송선

영등굿이 끝난 다음 제상에 올렸던 여러 가지 제물(祭物) 즉 과일, 해어, 떡 등 실어 먼 바다로 띄워 보낼 때 사용했던 짚 배를 가리킨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는 새를 주재료로 만든 것이 소장되어(자료번호 5602) 전해져 오고 있다.

#### (2) 초석

초석은 ‘새’라고 하는 청띠를 이용하여 초석틀에 날줄을 넣으며 짠다. 청띠라는 것을 잡풀을 쳐내버린 정선(정선)된 재료이다. 뚝도 짚이나 띠로 엮어지는데 섬이 밖으로 가도록 하는 것은 빗물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민의 온돌방에 깔고 있는 초석으로는 왕골초석과 새초석이 있다. 새초석이란 제주도에서 초가지붕을 덮고 있는 새를 재료로 하여 짜진 초석을 말한다. 8월이 되면 주로 성산면과 구좌면 일대의 주민들은 초석짜기 준비에 바빠진다. 지붕을 덮기 위한 띠는 11월 서리가

내린 후에 베는 것이 보통이나, 초석을 짜기 위한 띠는 그보다 앞서 파란 끼가 있을 때에 베는 것이 더욱 그 품질이 좋다고 해서 8월에 준비한다. 그리하여 대개 몇 사람씩 패를 싸서 초석새를 구입하러 나간다. 산간 각 촌의 들판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다행히 초석새가 잘 난 새앗이 발견되면 발임자를 찾아가서 상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띠를 사 온다. 그리하여 띠의 분량을 예측해서 십여명 내외로 한 동아리를 하여 양식과 기구를 가지고 띠밭으로 가 야영하면서 띠를 베어 말린다. 그런데 띠를 베어 말리는 가운데 비가 와서 그 띠가 비를 맞았다면 띠의 빛은 변하여 일품이 되지 못한다. 띠의 말림이 끝나며 장자릿새(상품), 중자릿새(중품), 좁은 자릿새(하품)로 구분하여 졸래(못 쓸 새)를 새치게(띠를 다듬는 일종의 빛)로 치게 된다. 졸래를 다 친 다음에는 동아리된 이들끼리 공평히 나누어 가진다. 그 중에서도 집광(책임)자에게는 집광찍(책임자뭉)이라 해서 얼마만큼의 띠를 더 준다. 이렇게 장만한 띠를 동짓달에 접어들어 농사일이 끝나면 십여 세된 아이들이 한 집에 모여 부섭(일면 봉덕화리라고도하여 마루 바닥에 고정시켜 놓은 화로)에 불을 피우고 초석놀을 끄게 되는데, 이렇게 모여 앉아 노끈을 끄는 데를 보통 노청이라고 말한다. 초석날이 다 마련되면 띠를 내어놓아 좀치게로 띠를 다시 다듬어 가지고 그 다음에 초석을 짜게 된다. 장년 남자와 처녀들은 두 사람씩 조를 짜서 초석을 짠다. 초석 짜는 과정은 가마니를 짜는 것과 비슷하다. 띠에 맞추어서 장자리, 중자리, 좁은자리, 외골자리 따위로 짜게 되며 특품으로는 양네남에 칼매운 초석이다. 양네남에 칼매운 초석이라 초석의 잘 되기와 크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초석 짜는 일은 단 한 사람만으로는 짜낼 수가 없는 것이요, 반드시 두 사람이 짜야 하는데, 이 때 한 사람은 초석바디를 때리고 또 한 사람은 띠를 쏘움게 된다. 그런데 이 초석을 짜내는 과정에 있어서 바디를 때리는 일은 누구나 익히면 쉬 할 수 있으나, 그 띠를 소우는 일은 좀처럼 숙달된 기술이 아니고서는 해내기 어렵다. 이렇게 짜낸 초석은 집안 노인네들이 가상자리를 두르고 잘 손질하여 내어다 팔게 된다. 농한기 농촌의 부업으로서 장려할 만한 일이라 칭찬받고 있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에는 여러 종류의 것이 소장되어(자료번호 3216 등) 전해져 오고 있다.

### (3) 짚동

‘복시미’라고도 하는데 상주(喪主)들의 ‘베개’를 말한다. 예전에는 흙으로 만들었으나 짚으로 만들어 6번을 묶었다. 상주의 수만큼 준비하였다가 사용한다. 주상(主喪)의 것이 가장 길고 차례대로 작았다고 한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는 새를 주재료로 만든 자료 여러 개가 소장되어(자료번호 3214 등) 전해져 오고 있다. 또 상주들이 신었던 신으로 ‘엄짚신’이 이용되었는데 박물관에는 여러 점이 소장되어(자료번호 5130 등) 전해오고 있다.

### (4) 허재비

정월대보름을 방쉬(放邪)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방쉬가 이루어지는 날이다. 그 해의 운수가 나쁘다고 판단이 내린 사람은 정월 대보름에 짚으로 사람 모양의 허재비를 만들고 그 운수 나쁜 사람 대신으로 삼도전 길거리나 아니면 바닷가에 모셔가 버려서 액막이를 하는 수가 있다. 벚짚으로 사람 모양의 허재비를 만들고 거기에 종이로 옷을 만들어 입히고 붓으로 눈, 코, 입 등 얼굴을 모두 그려서 삼도전 길거리 또는 바닷가로 모셔가 버리는 것인데, 이렇게 허재비를 만들어 액막이를 하는 것을 ‘도채비 방쉬’라고 말한다. 이 때 허재비를 만들어 놓고 비념을 하고 굿을 해서 염감본을 풀고 차사본풀이를 한 다음 퇴송(退送)하는 것인데 이 때는 “어느 고을 아무가이나은 선? 올 금년, 연액, 월액, 일액, 입수, 시액, 관송, 입송, 하란, 상고, 정광, 구열, 낙마, 삼재, 팔란지재액 일절 소멸호읍소서” 해서 반드시 그 운 나쁜이의 말을 하고서 그 허재배를 밖으로 모셔가 버린다고 한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으로서 그 해의 재수가 좋을 뿐만 아니라 신병(身病)도 좋아져 편안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버린 ‘허재비’는 그 후 제삼자가 발견하면 무조건 거기에 돌맹이질을 하고 지나간다. 그래야만 나쁜 액을 말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어떤 이는 그 ‘허재비’를 보았기 때문에 그 바쁜 병과 운을 얻을 까 두려워 그것을



보면 당장 태워 버리고 지나가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또한 '허제비머림'이라고 하여 "어떠한 일이나 대상으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허수아비"를 가리키는 민속도 있었다. 여기서 어떠한 일이나 대상의 예를 든다면 농사에 해로운 가마귀, 꿩, 새 따위를 들 수 있고, 그래서 가마귀를 멀리하려는 뜻에서 세워진다면 '가마귀머림'이요, 꿩을 멀리하기 위하여 세운 경우라면 '꿩머림'이 되는 것<sup>28)</sup>이다.

### (6) 샷

'금줄', '인줄'이라고도 한다. 보통 농어촌의 가정에서는 어떠한 정성드리는 제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의 경우에 부정스럼움을 막기 위하여 금줄을 매는 수가 있다. 금줄은 보통 검줄이라고도 말하는데, 이러한 금줄은 원샷기줄로 고아 매는 것이며, 보통 찾아갔던 손님이라도 그 집의 울레에 이러한 금줄이 매어있으면 더 이상 그 집안 들어가지 않는 풍속이 있다. 금줄을 매은 경우로는 보통 환자의 푸다시 후와 어떠한 고사(告祀) 전과 후 그리고 해산 후에도 매는 것인데, 그 기간은 일반적으로 해서 7일간으로 잡고 있다.

### 6) 예능오락

예능오락용 민속품으로는 '줄'이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의 민속놀이에서 오늘날 조리희(照里戲)라는 놀음을 찾아보기는 어렵지마는, 동국여지승람 및 동국세시기 등에서 조리희(照里戲)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28) 오곡이 여물 때가 되면 밭에는 주로 꿩들이 모여들어, 농부들은 이를 방제하기에 골몰한다. 특히 감제왓(고구마밭)에는 더욱 더 꿩의 피해를 보게 되난. 이러한 때 꿩의 방지로 나무에 짚을 감아 묶고 갈옷 입히고 병거지를 씌우꼭 해서 허수아비를 만들어 밭에 세워 '꿩머림'으로 삼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면 꿩은 그 밭의 허제비 머림을 보고 놀라서 멀리 도망쳤다고 한다.다부, 곧 쑥을 말려서 해로 묶은 것이다. 불을 붙여서 밭 둘레에 밤새 매달아 놓으면 불뚱이 계속 툭툭 튀고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멧돼지가 가까이 오지를 않아서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산간부락에서 이용한다.

같이 기록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8월 보름날, 제주에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나와서 노래와 춤의 모임을 열어 큰 성황을 이루는데 노래와 춤이 끝나면 또 좌우 두 패로 나누어 줄 당기기를 하여 승부를 다투는 것이다. 이 때 대개는 줄 한가운데가 끊어져서 좌우 양패가 모두 땅바닥에 쓰러지고 덩굴어지게 되어, 모였던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모두 웃음통이 터지니 이것을 ‘조리회’라고 한다고 했다. 이 때 사용된 줄은 일반의 짐줄보다는 굵고 컸을 것 같았으나 남아 있지 않다. 또한 탐라순력도에 옛날 천제연의 동쪽에 위치하여 중문원이란 마을이 있었는데 목사가 도일주를 하다가 그 곳에 이르면 반드시 쉬었다가 지나던 곳이었다고 한다. 당시 목사가 이 중문원에서 쉬게 되면 그 곳에서 천제연 폭포를 구경하면서 그 천제연의 양쪽 언덕에 과녁을 세우고 무사들을 시켜 활을 쏘게 하였다는데, 그럴 때는 절벽과 절벽 사이의 허공에 긴 밧줄을 매어놓고서 사람을 시켜서 그 줄을 따라 화살을 주우러 다니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 때 화살 쏘는 사람이 밧줄을 따라 반공을 타고 왔다갔다하는 아슬아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목사의 일행은 즐겁게 놀 수 있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그대로 당시의 관례가 되고 놀이로 발전해 왔다고 한다. 이 줄타기는 백기(百技)니 또는 잡희(雜戲)니 하는 놀이의 한가지로서 그 연원은 서천서역국에서 이미 볼 수 있었다고 하니 이것이 바로 이 곳으로 직수입된 예라면 천제연의 줄타기의 역사는 꽤 오랜 유습의 한가지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이 때 사용한 줄 또한 보통의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기능과 유습이 남아 있지 않아 상고하기가 쉽지 않은 편이다.

### 7) 운반용구

운반용구로는 ‘배’ 혹은 ‘베’, ‘참바’라고도 불렀던 것이 이용되었다. 특히 서귀포지역에서는 ‘배질’이라고 하여 밧줄을 날려 던져 마소의 목을 걸리는 일을 가리키기도 하였다. 다양한 것이 생활에 이용되었는데, 그물의 위쪽 코를 꿰어 잡아당기게 된 밧줄을 ‘베릿배’라고 하였으며, 마소의 짐을

실을 때 길마에 짐을 묶어 매는 밧줄을 '셋배', '수웁배'라고도 하였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는 마찰배(소장번호 1565), 질배(소장번호 2095 등), 말석(소장번호 4026), 쇠석(소장번호 2707), 오랑(소장번호 2708), 쇠앗배(소장번호 5444 등), 뼈배(소장번호 5724) 등 다양한 배가 소장되어 전해져 오고 있다.

## 5. 관련 민속

화산섬 제주의 생성배경과 해양성 기후의 온난다습한 자연환경은 다른 지역과는 구분되는 전통문화를 탄생시켰는데, 이는 다양한 초류(草類)로 인해 다양한 관련 민속문화를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들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풀이나 검질이 나는 것이 꺼렸던 민속과 새풀이 많이 돌아나길 기대하면서 '방화' 불을 놓기도 하였다.

### 1) '털 날' 보기

몸에 털이 있는 짐승을 '털짐승'이라고 한다. 특히 우리 민속의 여러 부문에 역할하고 있는 십이지(十二支) 중 이 '털짐승'의 날은 자(子), 축(丑), 인(寅), 묘(卯), 오(午), 미(未), 신(申), 유(酉), 술(戌), 해(亥) 등 9일이나 된다. 이처럼 털짐승의 날을 달리 '모충일(毛蟲日)', '유모일(有毛日)', '털짐승날', '털날'이라고도 불렀다. 정초부터 털 날은 한 번씩 번갈아 들게 된다. 그래서 제주도의 민속상으로 보면 '새칠 드는 날 수염난 사름이나 알 짓은 예편이나, 털중성이 들어오민 그 해 용시에 검질 짓나.'<sup>29)</sup>고 하여 입춘 날에 집안에 털 있는 동물이 찾아드는 것을 매우 꺼려했던 풍속이 있었다고 한다. 한편, '정월 맹질날 털날이 되민 그 해 '면해'<목화>가 잘

29) 입춘날 수염난 사람이나 음모(陰毛)가 많은 여편네나, 털 돋은 짐승이 들어오면 그 해 그 집 농사에 검질이 무성한다.

된다.’고 하여 1월 1일이 모충일(毛蟲日)이면 농가에서는 목화(木花)를 많이 갈았다고 한다.

## 2) 둔쇠

‘둔쇠’란 한 마을에 있어서 집집마다의 마소를 한데 모아 수십 필의 마소를 하루 한 짐씩 번갈아 가면서 차례로 방목에 당하게 되는 소 떼를 말한다. 이것은 ‘번쇠’ 또는 ‘쇠번’이라고도 하는데, 이 뜻은 번갈아 가면서 먹이는 쇠 또는 쇠 먹이는 당번의 뜻이 된다. 여기에 둔쇠의 ‘둔’은 ‘떼’란 말이며 ‘쇠’란 소의 지역어로서, 이러한 둔에는 ‘쇠둔’과 ‘몰둔’의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 보통 이러한 둔쇠 먹이기는 ‘방화(放火)<sup>30)</sup> 등에 의해 4월이 되어 새 풀이 돋아나기 시작할 때부터 10월이 되어 풀이 쇠서 없어질 때까지, 약 반년 동안 이러한 둔을 치게 된다.

## 3) 소분(掃墳)

소분이란 선묘(先墓)에 대한 벌초를 말한다. 8월 절기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선묘에 벌초를 가게 된다. 벌초는 보통 8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끝마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따라서 먼 곳에 있는 자손들은 8월의 절기만 들면, 보다 일찍이 틈을 타서 벌초를 하러 떼를 지어 다니는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 4) 출비기(꿀베기)

팔월 중순이 되면 한 겨울 동안 마소를 먹일 ‘출’(제주 지역어로 ‘꿀’을 가리킨다.)을 베어서 말린 다음 집으로 운반하였다가 ‘눌’을 눌러 월동(越冬) 준비를 하게 된다.

---

30) 김동섭, 「민속조사」, 『제주첨단과학단지조성에정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2004. 23~25쪽

## 5) 돛거름

돛거름은 돼지거름을 말한다. 이 거름은 주로 보리농사를 하는 데 있어서 보리씨에 섞어서 한꺼번에 밭에 뿌리는 것이, 이 거름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이 돛거름은 일년 내내 돼지우리 속에 집어넣은 보릿짚 같은 것을 썩힌 것으로서 보통 10월 보리농사 때가 되면 마당에 파내어 널리 퍼서, 거기에 보리씨를 골고루 뿌린다. 그래서 잘 섞여지게 마소로 하여금 밭은 다음 굶어모아서 2, 3일 동안 쌓아 둔다. 이것을 '진거름'이라고 한다. 그러면 순이 난 것도 있고 하는데 이것을 밭으로 실고 나가 그 '진거름'을 손으로 떼어 밭에 놓게된다. 그러면 거름은 씨앗에만 붙게 되니 비료의 효과는 다른 어떤 방법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보리씨와 거름을 따로 따로 파종(播種)하는 것보다 많은 수확을 올리게 된다고 한다.

## 6. 제주도 초재민속품의 고유성 분석

첫째,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서 초류는 새, 짚 등이 이용되었다. 또 한 식용(食用)으로 다양한 팽마농, 꼭박, 열매와 물룻 등 풀 자체, 인동고장 등 꽃을 이용하기도 하였으며, 칩뿌리 살마 등이 지역과 계절을 달리 하면서 이용되어 알 수 있게 한다.

둘째, 다양한 민속품들이 생활 전반에 이용됨을 살필 수 있다. 우선 우장, 정당벌립, 짚신, 등의 의생활용 민속품과 부채 등 계절 생활용 민속품이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바가지, 표주박, 채반, 약돌기, 춤 등의 식생활 민속품, 문초리, 고리짜, 짚방석, 지직, 발 등의 주생활용 민속품, 푸는채, 맥, 멍석, 멜망탱이, 씨부게, ㄱ렛방석, 칩구덕, 굴채, 가린석, 가마니, 눌, 베톨술 등의 농기구, 망울, 독새기통, 닭텅에, 해심 등의 축산구, 망사리, 배초석 등의 어로구, 툄레가 사용되었던 보습불미에 사용되었던 것을 포함한 다양한 생업용구가 초류를 재료로 만들어 사용하였던 초재

민속품이었다. 또한 짚배라고 알려진 퇴송선, 초석, 짚동, 허재비, 삿 등 신앙의례에서도, 조리회 및 줄타기 등 예능의 분야에서도 사용되는 등 초재민속품들은 다양한 생활속에서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셋째, 풀을 이용하거나 풀과 같은 검질이 많은 꺼렸던 민속으로 털날보기, 둔쇠, 소분, 출베기, 돛걸름내기 등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민속이 제주에만 전해져 오고 있는 것은 제주가 갖는 지정학적 특징과 기후 등이 만들어낸 문화적 산물임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 7. 결론

지금까지 제주라는 지정학적 특징이 만들어 낸 남해 먼바다에 위치한 화산섬의 초재민속품을 살폈다. 이는 고온다습한 기후에서 자라는 다양한 초류들을 재료로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등 삶의 기본생활용품은 물론, 농기구, 어로구, 목축구 등 생업현장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민속품들이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신앙의례의 현장과 예능오락의 현장에서도 만날 수 있는 재료가 초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한 점과 다우(多雨)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쉽게 물에 젖지 않는 재료를 이용하였던 지혜와 재료의 특성을 살피 오래도록 불씨를 보관할 수 있도록 고안한 경험 또한 초재민속품을 통해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본고에서 다루지 못했던 다른 지역의 초재민속품과의 비교를 통한 제주 초재민속품의 고유성 발견은 고(稿)를 달리하여 살피고자 한다.

- 핵심어: 새, 짚, 정당벌립, 해심, 허재비, 출베기

### <참고문헌>

각주로 대신함.

<Abstract>

Study on the folklore products made of plants

Kim Dong-seop

Firstly, eulalia and straw were widely used because they were easy to find. Also a variety of plants including wild rocambole, a gourd and flowers including flower of honeysuckle were widely eaten. Depending on seasons and regions, arrowroot and yam were utilized.

Secondly, a variety of folklore products were used in people's daily lives. Products related to clothing habits such as rain gear, a hat made of coculus trilobus and straw shoes and seasonal daily utensils like fan were easy to see. The folklore products made of plants include goods for dietary life including a calabash, a small gourd, wicker tray, a net bag, a lice combs, gears for housing life ranging from a door ring and suitcase to floor cushion made of straw, straw cattail and blind. In addition, farming appliances such as a sieve, a straw basket, a straw mat, a net bag for anchovy, a bag for seeds, a round straw mat, a cradle made of arrowroot, mesh strainer, a rope for cow, straw bag and haystack as well as a loom and appliances for stock raising including mouse belt for cow, egg container, a stick for fire and appliances for fishery such as a net and a straw mat for ship and other appliances for their daily lives belong to the folklore products made of plants. Also the plant product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eople's daily lives being used in religious riots including *Taesongseon* or a straw boat, a straw mat, a pillow for mourner, a scarecrow, and a straw mat for ship and in art such as *Jorihee* or traditional summer

dance festival and tight rope dancing.

Thirdly, the tradition related to plants or the tendency to avoid weed is reflected in unique folk customs of Jeju such as seeing of for animals's day, *Doonseoi* or collective raising of livestock, *Sobun* or the occasional pulling of the weed from the ancestors graves, hay cutting, and cleaning up the pigsty. These unique customs exist only in Jeju because they are the cultural products of the geological condition and climate of the island.

- Key Words: eulalia, straw, a hat made of *coculus trilobus*, a stick for fire, a scarecrow, hay cutting